

# 광가시난에 떨어진 다섯 ALIEN 이야기

라온아띠 IO기 필리핀 광가시난팀, 최종 보고회

김연, 김보경, 박진경, 선다희, 우민아

RaonAtti

# 1. 다섯 사람



Jun    Dainey    Aurora    MinAh    Alex

지난 여름,

**RaomAtti** 라는 이름으로 만났다. 여러가지 Keyword를 손에 얻었다.

Asia적 감수성    공동체    어디가도 함께 가라  
청년    ???????    봉사활동?    소통  
연대    팀

# 1. 다섯 사람



Jun    Dainey    Aurora    MinAh    Alex

나 이제 진짜 가? 진짜? 나 필리핀 가는거야?

군대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야하나 무척 고민.. 일단 가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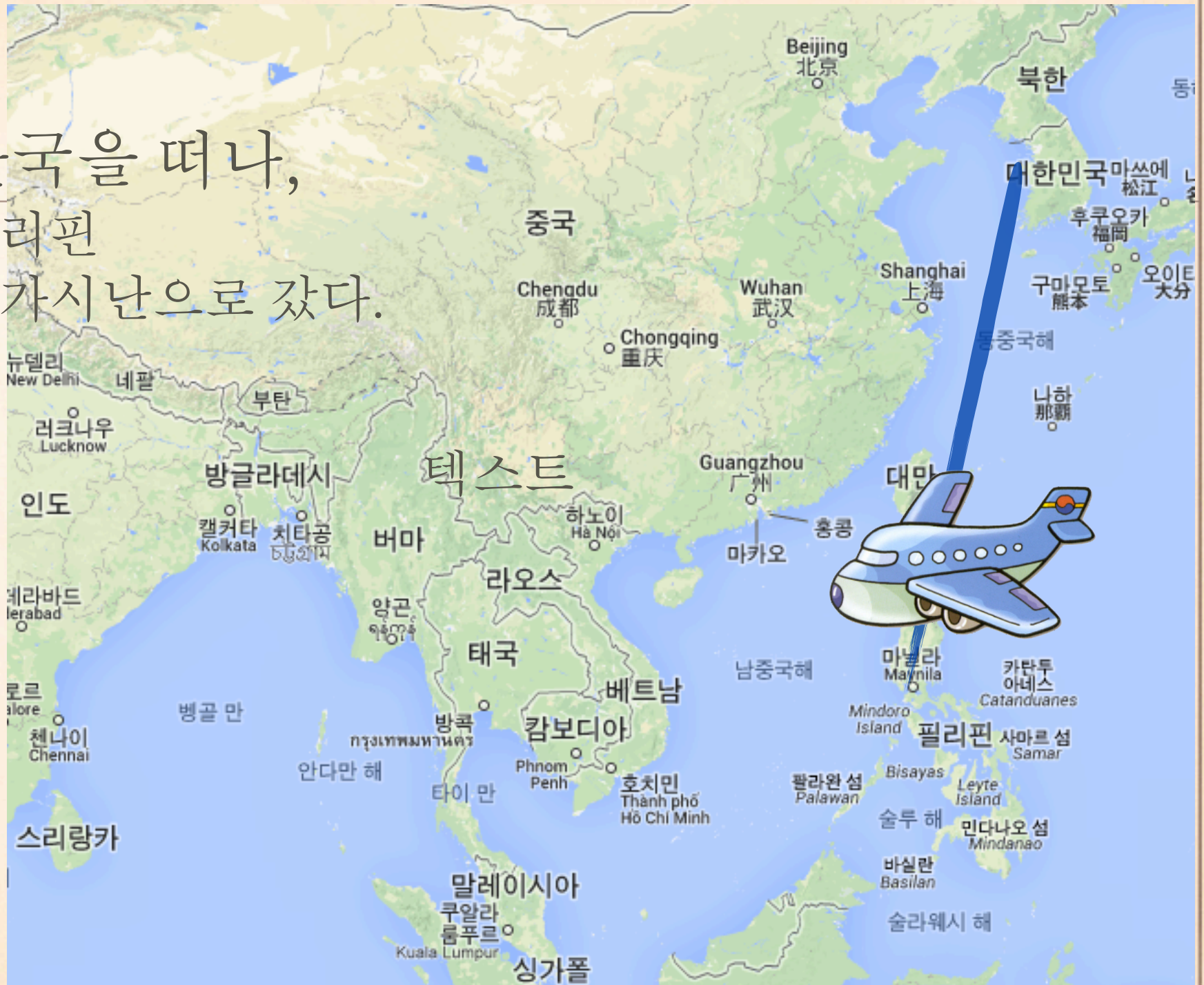
해외에 처음 나가는 막연한 설렘, 호기심 폭발,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일까? 얼른 가고싶다!

드디어 팡가시난에 간다니 행복해. 앞으로의 다섯달 기대!

신난다. 기대된다. 그러나. 내가 우리 팀원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최악의 시나리오 작성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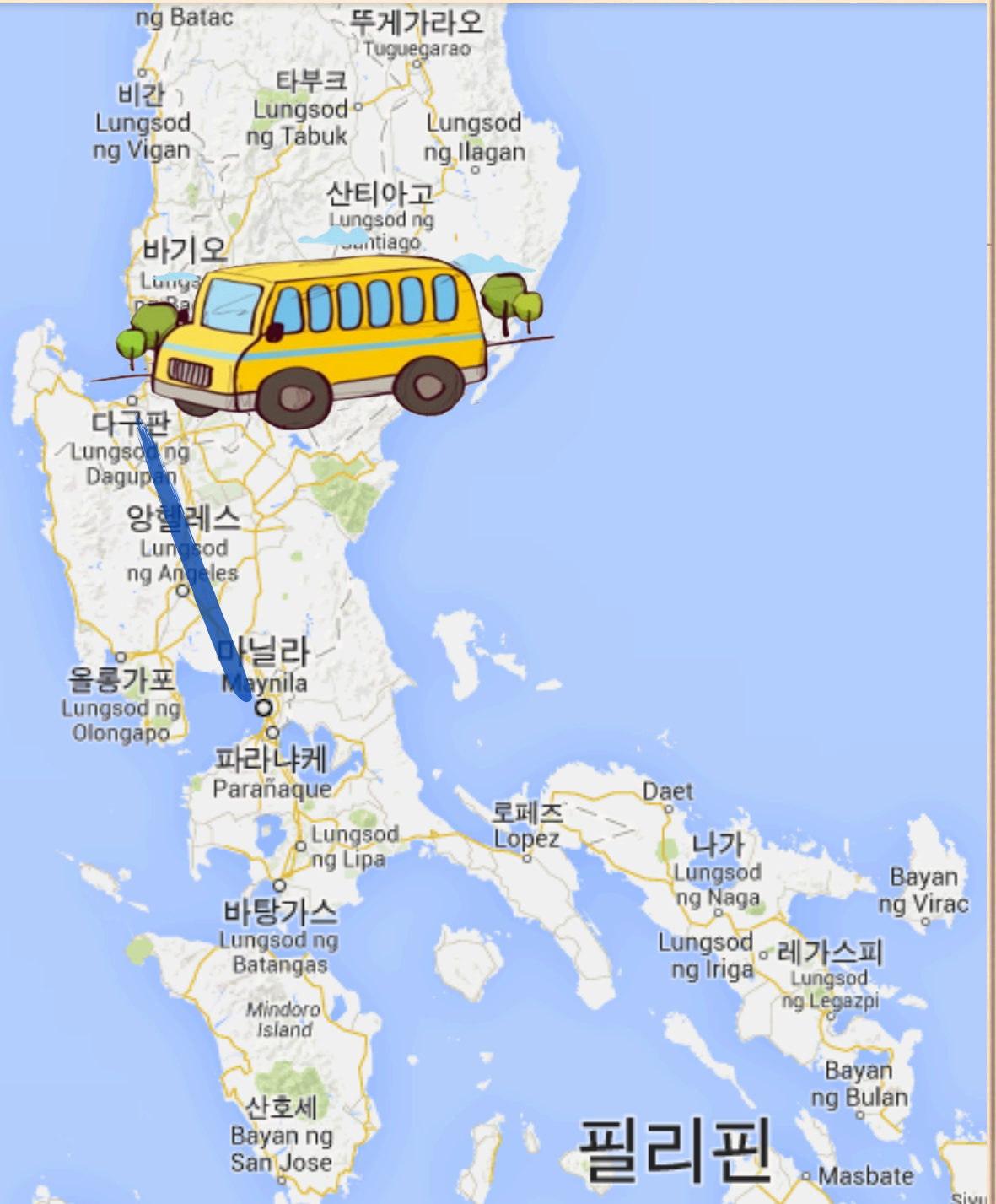
2.

한국을 떠나,  
필리핀  
팡가시난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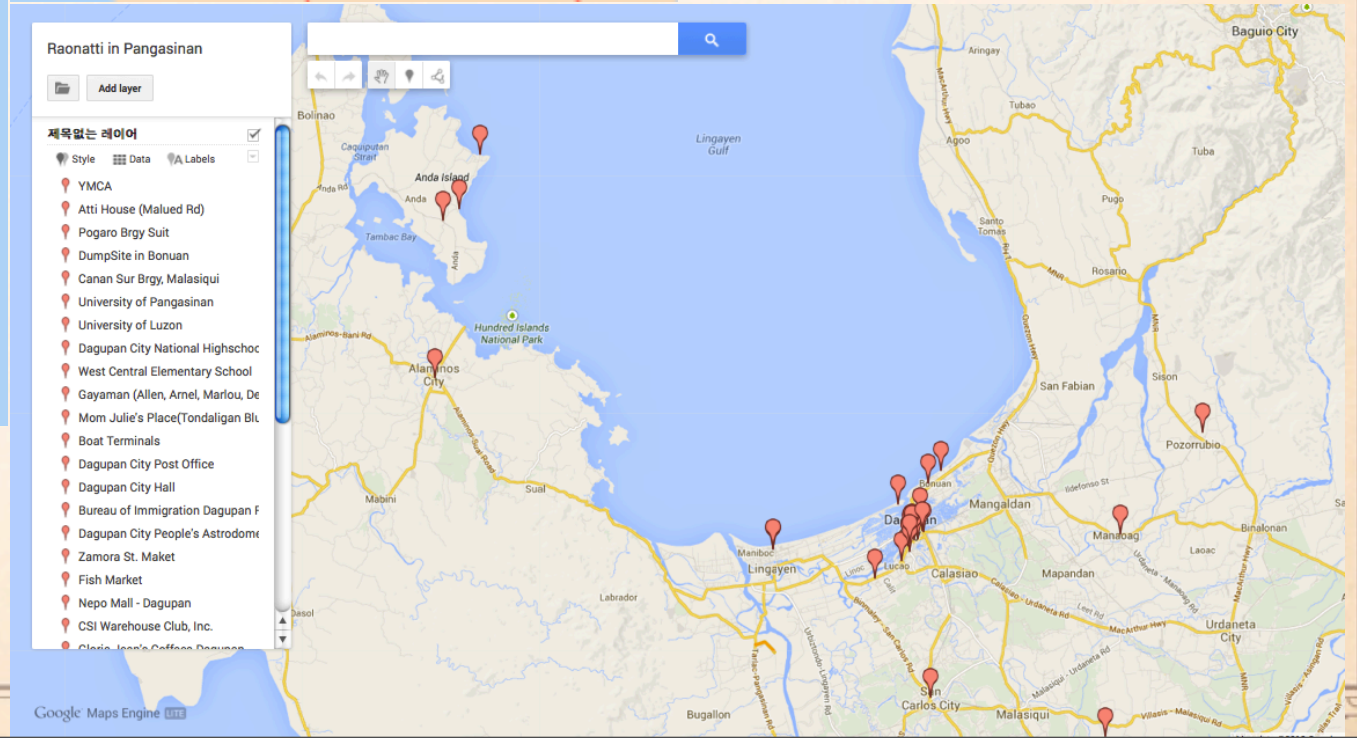
2.

한국을 떠나,  
필리핀  
광가시난으로 갔다.



# 3. 우리가 지낸 곳들

# Pangasinan, Philippines



# 4. DAGUPAN CITY



YMCA of Pangasinan의 구성원이 되었다.

- ✓ 지역 이해하기 / Y프로그램 보조 / Y회원그룹 만나기 / Atti House 자취 / Y구성원 관계맺기 / 수 많은 친구들
- ✓ RaonAtti Project in Pugaro Island / Bonuan Dumpsite

# 5. PUGARO ISLAND



Dagupan City의 Brgy. Pugaro에서 9월-12월에 걸쳐,



✓ Pugaro Day Care Center 보조



✓ 주민들과 관계맺기



# 6. BONUAN DUMPSITE

- 9월 18일 첫 방문



이런 곳에 사람이 살다니

숨쉬기조차 힘들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나

낮선 느낌의 사람들.  
우리를 꺼리면 어찌지?

처음 만난 주민들 어색한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쓰레기산과 바로 맞닿은  
해변이 너무 예뻐 슬픈



# 6. BONUAN DUMPSITE



9월, 10월  
지역과 사람들을  
천천히 이해하고  
라운아띠의 접근법을  
만들어갔던 시간.

- ✓ Dumpsite. 짐차 없애 나가야 하지만, 지금 ‘사람이 살고있는 곳.’
- ✓ 어려움 : 적은 소득, 열악한 의료, 위생환경과 생활용수, 아동 노동 등
- ✓ 꼭 해결해야하는 어려움 중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함께!

# 6. BONUAN DUMPSITE



10월-12월 함께한 활동들

- ✓ 개인위생 교육
- ✓ 상처 치료
- ✓ 어린이 Atti Klase
- ✓ 마을 Survey
- ✓ 간식나눔
- ✓ Christmas Party
- ✓ 가족사진 촬영

➡ Isolated Community에 다가가,  
친구되기 :)



# 6. BONUAN DUMPSITE

- 작별 인사를 하며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냄새.  
사람들에 맞추어진 내 초점.  
맑고 깨끗한 사람들의 마음.

내 친구들이 사는 곳.  
다시 오고 싶다.

나의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길.  
다시 만나요!

떠나기 싫다. 남은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지..

한국가서 애들 너무  
보고싶을 거야!

# 7. RAONATTI WORKS



- ✓ 태권도 수업
- ✓ Video & Photography 수업
- ✓ 학교 방문 프로그램
- ✓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 ✓ End Poverty Campaign
- ✓ and more..



# 8. Dagupan을 떠나며

- 12월 22일 Malasiqui로 이사



- .. ‘잘 마무리 된’ Atti Project들.
- .. 급하게 짐을 싸고 떠난 일정.
- .. 팀-기관, 팀내에 쌓인 크고 작은 갈등.
- .. ‘다구판-말라시키’ 지역 일정의 단절.
- .. 지속성에 대한 걱정.

드디어 꿈처럼 바랐던 아날로그 생활이 시작될 것, 무척 좋아.

팀원들과 떨어져 사는 것 불안. Malasiqui에서 내가 맡은 역할 잘 할 수 있을까? Pugaro, Dumpsite 아이들 보고싶을 것 같아.

Canan Sur 생활 너무 기대. 빨리 가고 싶다! 하지만 Dagupan의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가야하는 것, 걱정인데.

시원섭섭. 새로운 장소, 사람을 만날 것에 긴장이 가득.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 반, Dumpsite에서 멀어지는 걱정 반.



# 9. 그렇게 제 2막과도 같았던, Malasiqui로의 이사.



✓ 전원/농가 마을

✓ 친족 커뮤니티

✓ 홈스테이

✓ RaonAtti에  
커다란 환대

✓ 단원별 활동

? Poor한 마을이라 하지만, 아닌 것 같은데?

? 우리가 이렇게나 환영할만한 사람들? 한국인이어서?



# 10. CANAN 홈스테이, 마을살이







# 10. CANAN 단원별 활동



✓ Alex : Mother's Club / 의학지식 나눔



✓ Jun : Family Farming



# 10. CANAN 단원별 활동



✓ Aurora : Daycare Center - 수업 보조



✓ Dainey : Daycare Center - Feeding



# 10. CANAN 단원별 활동

Topic 2 : 나의 주변 다시 느끼기 - 활동 1 : 연극놀이 / 과제 3 : 주변 사람 인터뷰 하기



Topic 1 : 자기 자신 알기 - 과제 1 : 자기 표현하기 / 과제 2 : 내 인생의 다섯 사람과 다섯 사건



Topic 3 : 자기 관심사 탐구 // Topic 4 : 사회 참여하기 - Dumpsite Project 소개 등

✓ MinAh : Canan Nat'l High School - Journalist 되기 워크샵



# 11. Brgy. CANAN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Canan Sur 생활.





## 11. Brgy. CANAN

행복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Canan Sur 생활.

왜 그랬을까?

마을 살이의 행복함  
너무 좋은 사람들

이 전, 과업 지향적이었던 우리팀  
절대적으로 줄어든 업무량, 늘어난 노는시간!  
체력 보충 :)

단원 별 홈스테이와 활동 - 갈등 감소  
단원끼리 서로 떨어져 바라 볼 시간  
Y와의 갈등으로 팀이 단결되기도 했던.

무엇보다 우리끼리 컸던 벽. 서로 배려-양보가 부족했던.  
우리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12. 작별의 시간

CANAN

라온아띠  
환송식

눈물  
망고와 깡뽕 편지

“thank you,  
love you,  
sorry because..”

3박 4일의 작별

DUMPSITE  
/ PUGARO

떨어지지 않는 발길..  
시원 섭섭

YMCA OF  
PANGASINAN

5달간 만난 모든 이가  
모였던 환송식

미운정 고운정  
“Good Bye! Enjoy!”

우리 친구들

Jimmy 총장님

# 13.

1월 31일 - 2월 4일

Canan을 떠나고, Dumpsite와 Pugaro에 작별 인사, Baguio City로 마무리 여행, Y 송별회, Manila 최종 평가, Philippines 출국



갑작스러운 듯 빠르게 모든 것과 '안녕'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2주가 지났다.

# 14. 필름 생각

5개월동안 가장 고민했던건 '함께 일하는 법'이 아니었을까.

팀 내부에서 너무나 다른 개인들이 모여 한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호스트 기관과 여러 가지 사안을 의논할 때 등. 개인의 가치관 차이, 국가간 문화의 차이 등 넘어서야 할 차이들이 참 많았다.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과정이 썩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수많은 마찰과 충돌을 겪어내야만 했다. 다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야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끌어안은 채로 답안을 찾아내야 했다. 예전엔 이해할 수 없다며 등돌려버렸을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지난 5개월이었다. 완전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니어도, 팀원들 모두 이런 측면에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 다른 깊이의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 그만큼 성장한 것 같다.

.....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배웠던 것 같아. 팀 안에서 어쩔 땐 티격태격 싸워도 우리 다섯밖에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



# 14. 필름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팀은 개인의 개성이 무척 참 허버 뚜렷하다. 귀국 전까지 아니 현지에서 2달 동안 살 때까지만 해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우리 팀은 개인의 성향과 휴식을 즐기는 팀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자 각자 생활방식과 개성이 달랐을 뿐이지 최종 목표는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우리팀에 각 개성이 있었기에 배울점이 많았던 것 같다. 장점과 가치관 생각 등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중복된 캐릭터는 있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본받고 싶었기에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보이고 말없이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애쓸 수 있었다.

우리 팀은 현지 생활 2달차와 5달차로 변화가 나뉘진다. 2달 쯤까진 우리 모두 우리의 활동에 으샤으샤 했고, 각자의 캐릭터들이 아직도 뚜렷하게 보였었다. 뚜렷한 마찰과 충돌이 계속되기도 하였지만 2달이 후 우리는 서로 이제 완전히 이해?했었던것같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감이라도 했다. 내가 가장 늦게 이런 변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횟수가 더 많아진 것 같다.

각자의 캐릭터가 뚜렷하였기에, 다른 단원들보다 한 명 더 많았기에, 인생의 큰 경험을 준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들으며, 정말로 그렇냐는 의문을 던졌던 나는, 이 곳에서 함께인 것이 어떻게 행복한지, 그런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5개월짜리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통해 배웠다.

# 15. 우리의 열린 결말



우리가 따로 또 같이 앞으로 써 갈 이야기들.  
그리고 II기 필리핀팀 광가시난에서의 멋진 날들을 기대하며.

# 16. 개인 소회

Jun

MinAh

Alex

Dainey



Aurora



안녕!  
Balaleg ya Salamat!